

● 제290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
제3차 운영위원회

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·금강산관광 재개
촉구 결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19.

운 영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·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】

I. 결의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인제 의원 외 102명 공동발의
- 나. 제안일 : 2019. 11. 28.
- 다. 회부일 : 2019. 11. 29.
- 라. 의안번호 : 1220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남북평화변영의 상징으로 2000년 6·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,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음.
- 20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‘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’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향후 30년간(2018~2047) 남한은 각각 159.2조원과 4.12조원, 북한은 각각 51.3조원과 17.3조원으로 전망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나타냄.
- 남북은 2018년 9.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“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”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현재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

이루지 못하고 있음.

- 지난 6월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되었지만,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간 관계개선도 정체된 상태임.
-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에 북한 정부가 거부 의사 표명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음.
- 정체된 북미 대화와 북한 정부의 남북대화 거부 국면이지만, 이러한 상황일수록 다시금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.
- 이에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, 미국 등 세계 각 국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결의안은 남·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와 협의,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.

2 결의안의 타당성 검토

- 금강산 관광은 한국 민간인이 북한의 금강산 일대를 여행하는 사업으로 1998년 11월에 시작되어 남·북 분단 50년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아 왔음.
- 그러나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이 쏜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현재까지 잠정 중단 상태임.
- 한편, 개성공단은 2000년 6·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,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간 ‘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’ 체결, 2002년 11월 북한의 「개성공업지구법」 공포 등에 따라 구체화된 이래 남북경협的重要한 역할을 해 왔음.
-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년을 맞이하고 있음.
-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·북·미 3국 간 비핵화 협상 추진, 2018년 9·19 평양공동 선언¹⁾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

1)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

사업 재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음.

- 그러나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·미 간 관계도 정체 되면서 최근 북한 측은 금강산 남측시설물의 철거를 통보해 왔음. 이에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상황임.
- 이렇듯 최근 정체된 북·미 협상과 북한의 남·북 대화 거부 등 어려운 여건 이지만, 남·북·미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마중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한 남과 북,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.
- 이에 본 결의안은 남·북 간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 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북한의 적극적인 남·북 대화 참여와 협의,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함. 다만,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설득도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본 결의안은 북·미 비핵화 협상과 남·북 대화 정체 국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남·북을 비롯한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,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원칙의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.